

평신도를 위한 신학 / 교리

그리스도의 속죄교리(3)

존경과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대로 예수님이 위대하여 존경할 만한 분이어서 예수님을 모방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행하신 위대한 기적과 기적 중의 기적이 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 않고 단순한 모범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온다. 요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다. 그것은 당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으라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자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속죄교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그리스도의 피다. 왜냐하면 히9:22의 말씀과 같이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에는 피란 말이 362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 203번이 죽음에 사용되었고, 103번은 희생의 피로 사용되었다. 신약에는 피란 단어가 98번 사용되었다. 종합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기 피가 흐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창3장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과 가축의 이야기는 피흘림을 전제하는 것이며,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이나 출애굽때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린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14:24)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김 승 환	1청년부, 예배	010-2748-5218
	박 중 건	2청년부, 교육	010-8537-0370
심방전도사	김 정 희	교구, 중보기도	010-2394-4476
	김루디아	교구, 새가족부	010-4534-7250
교육전도사	김 원 와	영아부	010-9251-6255
	고 애 란	유치부	010-9267-6413
	권 창 현	중고등부, 찬양	010-9381-6323
	최 준 혁	유초등부	010-2293-1093

장 로	김형복 류재천 김형필 윤영호
은 퇴 장 로	김정웅 김주량 남상목
명 예 장 로	공순영 김길성 김석현 김정남 김정현 나희태 이복우 조기신 최병철 황상호
지 휘	최 영 방성호
피 아 노	김경원 강성희 정현주 최 은
오 르 간	강성희

행정사무원	김용희	행정-사무	010-7582-1009
음향간사	정병국	음향	010-4044-8653
영상간사	추연철	방송-영상	010-2218-3507
관 리	김형복	관리-차량운행	010-3933-0461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1부 오전 8시	사 랑 흘 (3층)
	2부 오전 10시	비 전 흘 (2층)
	3부 낮 12시	비 전 흘 (2층)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비 전 흘 (2층)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사 랑 흘 (3층)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30분	사 랑 흘 (3층)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사 랑 흘 (3층)
영 아 부	주일 오전 10시, 12시	영아부실(2층)
유 치 부	주일 오전 10시, 12시	유치부실(1층)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 10시	사 랑 흘 (3층)
중 등 부	주일 낮 12시	사 랑 흘 (3층)
고 등 부	주일 낮 12시	사 랑 흘 (3층)
청 년 1 부	주일 오후 2시30분	사 랑 흘 (3층)
청 년 2 부	주일 오후 2시30분	사 랑 흘 (3층)

교회 오시는 길



제45권 6호 2016년 2월 7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예수공동체"

www.jesusvl.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꿈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김 동 진 Rev. Kim Dong-J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동남로4번길 12
TEL. 031)714-1004, 9191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주일오전예배

WORSHIP

사회 찬양	1부 김승환 목사	2부 김승환 목사 2부 히 엘	3부 박종건 목사 3부 아이노스
경배와찬양			다 함 깨
※ 송 영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 깨
※ 교 독 문		8. 시편 14편	다 함 깨
※ 사 도 신 경			다 함 깨
※ 찬 송		46장(이날은 주님 정하신)	다 함 깨
기도인도			1부 윤영호 장로 2부 김형필 장로 3부 류재천 장로
교 제 찬 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다 함 깨
교 회 소 식			사 회 자
헌 금		615장(그 큰 일을 행하신)	다 함 깨
성 경 봉 독		전도서 1:2-15(구약p.948)	담 당 자
찬 양		"주 나의 모든 것"	호 산 나
		"나 겸손히"	예 루 살 렘
설 교		"세월은 가도 영원한 것"	김동진 목사
※ 찬양과기도			다 함 깨
※ 축 도			김동진 목사
※ 파 송 찬 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함 깨

※는 일어서 주십시오. / ■ 1부 예배순서

주일오후예배

설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시 간 | 오후 7시30분
설 교 | 빌 1:9~11
| 공동체를 향한 기도
| 김승환 목사

금요기도회

시 간 | 오후 8시30분
장 소 | 비전홀(2층)
담 당 | 김동진 목사

새벽기도회

시 간 | 오전 5시
장 소 | 비전홀(2층)
담 당 | 담임목사/교역자

교회 소식

새가족 소개

새로 등록하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로 인도자와 함께 오셔서 담임목사님을 만나주세요.

NO.	성명	주소	인도자	NO.	성명	주소	인도자
21	장영범	중원구	김정자B	25	김민기	분당동	스스로
22	최유선	수내동	김광자	26	김미래	분당동	스스로
23	김지희	수내동	장예지	27	김나래	분당동	스스로
24	오경연	분당동	스스로	28			

꿈과사랑의교회 성도의 다짐

1. 나는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2. 나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예수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3. 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4.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2016년도 표어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계21:5)

예배를 새롭게 하소서 / 교육을 새롭게 하소서 / 선교를 새롭게 하소서 / 봉사를 새롭게 하소서

1. 설날 연휴 예배안내

- 오늘 오후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 오늘 주일낮예배 후 식사봉사는 없습니다.
- 설날 연휴(8-10) 새벽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 10일 수요일예배는 다같이 모입니다(7시30분, 비전홀)
- 가정예배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가정당 1부씩 가져가세요.)

2. 꿈과사랑의교회 장학회 운영

- 운영을 위한 장학회원 모집(여전대회, 회비X)
- 장학회활동: 김, 미역, 참기름, 들기름, 깨 등 / 명절: 떡국 떡, 굴비 등 판매

3. 2016년 제직위원회 모임: 다음 주일(14일) 오후예배후, 비전홀

4. 교육위원회 월례회: 다음 주일(14일) 13:40~14:50분, 5층 빌립홀

5. 교사헌신예배: 2월21일 주일오후예배, 비전홀

- 교육부서 부장 및 교사

6. 꿈과사랑의교회 교사대학

- 1학기 개강: 2월21일, 28일(주일오후예배후), 3층 사랑홀
- 21일: 발달심리에 기초한 교회교육(오영숙사모) / 구약을 한눈에(김승환목사)
- 28일: 교사와 멘토링(이론과 실습)(김정연 박사)
- 대상: 교육부서 전교사 및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

교육 및 모임

내 용	시 간	장 소
1청년부 모임	젊은이예배(2시30분) 후	빌립홀(5층)
2청년부 모임	젊은이예배(2시30분) 후	사랑홀(3층)
안수집사 제자훈련	오후예배 후	안수집사회실(6층)
구역장 공과교육	오후예배 후	꿈사랑홀(3층)
안수집사 기도모임	주일오전 8시30분	안수집사회실(6층)
화요중보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1시	한나실(B1층)
수요중보기도모임	수요일예배 후	사랑홀(3층)
목요중보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1시	한나실(B1층)

지난 주 말씀

고전 1:18-25 십자가의 도

복음=좋은 소식=유양겔리는 성경전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 완성된 구원사역에 관한 메시지를 가리킨다. 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고난, 부활과 승천, 영광과 통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1. 우리는 복음을 소홀히 하고 복음에 무식하다

복음을 소홀히 하는데서 모든 병폐가 비롯된다. 성도들도 복음에 무지하고 목회자들도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지 않아서 근본진리에 무식하다. 교회는 복음을 몇가지 조항으로 축소하고 회개를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겨 놓았는데 이런 현상의 병폐가 있다. ①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좋은 줄로 알고 아직도 세속의 삶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 ②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집합체가 되게 한다. ③ 교회는 복음이 그 자체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 문화현상에 편승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④ 결국 이런 축소된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빚는다.

2.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미련하다고 생각한다.(18절)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정의, 정치, 철학, 도덕윤리를 논한다. 그러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전파내용이 될 수 없다. 복음은 당시 사람들이 진리로 믿고 있던 모든 것과 충돌하였다. 오늘날도 복음은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과 배치된다.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가 상대의 신을 마구 진짜라고 인정해 주고 기독교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만 전파하니 "독선적,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참된 복음은 그런 면에서 철저히 배타적이다. 예수님은 오직 한 길(the way)이시다.

3.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선한 것을 재창조하느니 차라리 무에서 선한 것을 창조하는 일이 더 쉬울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복음 밖에 없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한 가지 곧, 선포하는 것뿐이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전파하자.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의 살길이며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십자가를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이길 수 있기를 바란다.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유규황 문정자 유순중 전명주 강충호 최해주 김연남 김동진 김광선 이화용 전정숙 황춘하 김은호 정춘자 김형석 진성용 정미선 신용철 이은실 이창우 이재용 임유순 송봉원 이상금 조윤심 민송식 이종순 김성균 이항란 김일영 민지은 여민국 한사랑 김철호 박순희 김정구 박경숙 한영봉 황상호 김애돌 최명순 송태남 김채원 강종주 김경희 우치영 이영숙 최 은 김영숙 현종열 한혜원 김형복 이명희 윤정운 정박현 조병순 최금환 조명옥 이선용 길예원 손명철 남애희 강태원 안원옥 박정복 김길성 심경자 최혜옥 남화자 이기중 김지영 조혁래 정은란 정효선 최준혁 원상미 나완용 김경림 김명희 조애자 송문철 임미영 김명희B 무명2

감사헌금 김동진 오영숙 임종열 손이환 이열우 류인숙 이화용 유상환 오재인 최해주 황우석 양수이 한사랑 김창규 최금자 심재희 김경원 심건우 김경숙 이창우 이은준 심금란 최기철 박정숙 전경옥 손명철 류재천 김경숙 강영옥 함윤주 고애란 조병순 조윤심 이창우 정춘자 김동현 나완용 김경림 나승현 나현주 김호준 윤영호 한인숙 남화자 윤정운 전명주 박정옥 김석현 백사랑 이호자 박재순 신남숙 남애희 김채란 김정중 김남성 박종건 조은영 이신호 이소영 이신성 이강석 박양숙 신정례A 류일청 김수정 류지우 김경호 김에스터 무명15

철야헌금 김동진 오영숙 김현기 김영신 이윤주 임태현 김신영 김철호 박순희 한사랑
선교헌금 한영봉 손다영 조윤심 최 환 김은조 / **건축헌금** 나완용 김경림 나현주 나승현 / **심방감사헌금** 백순희 한상순
상조헌금 박점복 진병환 심정자 김정자 주관호 이현주 김혜중 전은선 김용례 강정석 강기환 백금령 김영임 백인구 백수연 이하진 이명희 김형복 하래순 한영봉 박옥엽 김명희 한사랑 최명순

※ 주일헌금은 주일헌금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헌금: 신한은행 100-028-714510(예금주: 꿈과사랑의교회)

헌금 위원		
1부	2부	3부
신일숙	이화용 민지은 유순중 박경숙 전관숙 정정순 김용래 이윤주	이현희 윤종오 손명철 홍기전 국희종 조명옥 서관선 박양숙 송해숙